

청년층의 주거와 취업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Young People's Housing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Willingness for Marriage

황광훈**

Kwanghoon Hw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ous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youth using occupational history data from the 10th-14th (2016-2020) youth panel (YP2007)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nd employment. Their effect on marriage intention was empir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highly educated people, high-wage workers, household heads or economically independent young people, and young people in good financial conditions have a high willingness to marry. Their economic condi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mong the young employed who have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full-time permanent workers, workers at large corporations, and highly waged youth showed a strong desire to get married. On the contrary, young people who are insecure temporary/daily workers, workers at small firms, and low-wage workers show a low willingness to marry. In conclusion, the results imply that young people who are in a vulnerable state in the labor market are giving up or delaying their marri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policies to provide bette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th and, simultaneously, revamp the policy measures to enhance housing conditions.

Keywords : Housing, Employment, Willingness for Marriage, Pooled Logit, Fixed Effect Model

1. 서론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청년층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인데, 더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주거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황광훈, 2022). 또한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청년층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가난한 청년들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또한 취업한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하는 등과 같이 이전 부모 세대의 전형적인 삶의 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청년세대라 할 수 있다.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시기인 청년을 대표하는 단어가 '포기'가 되었으며, 연애, 결혼, 출산 등 삼포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오포(연애, 결혼, 출산+인간관계, 주택 구입)로 포기의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변수정

*이 논문은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년층의 주거 및 취업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hunzzang96@keis.or.kr)

외, 2018). 이 중에서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왔던 결혼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혼이라는 삶의 과정이 개인의 선택이 되어 버렸다. 이와 더불어 결혼과 출산 사이의 관계가 매우 연결성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 지연과 포기가 저출산 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그 자체로의 문제뿐 아니라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까지 이어져 청년들의 포기 현상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변수정 외, 2018).

더욱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전개 될 고령사회를 생각해보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자 자산인 청년층이 주거, 일자리, 결혼 및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손실일 것이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저학력, 비수도권 청년층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마련 문제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초·중학교부터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한다(황광훈, 2021). 하지만 많은 청년층이 자신이 원하는 희망직업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희망하거나 전공에 맞는 직업으로 취업하여 안착하기 위해서 잦은 이직을 경험하거나 실업 상태로 전환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국가와 도시들도 있다(황광훈,

2022). 국내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1985년 6.9%에서 2018년 29.8%에서 2045년에는 36.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의 1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가구에서 29.8%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김선주, 2020).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다인 가구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며, 사회적 특성은 가족관계와 결혼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고령 1인 가구의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박미선·이재춘, 2018). 1인 가구가 구성되는 요인도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여러 가지이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및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해버리고 혼자 살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포함하여 주거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며,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정리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주거의 특성들이 향후 결혼 의향(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경우 취업한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실태와 결혼 의향에 주거 문제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이러한 주거 특성들과 결혼 간의 인과 관계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주거 특성 뿐만 아니라 결혼 의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저축여부, 경제적 지원 여부, 건강상태 등에 관해서도 영향여부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임금 등도 결혼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생 각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본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 및 정리하고, 제3 장에서는 분석자료를 설명하고, 분석 모형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청년층의 주거형태 특성 및 결혼의 향 분포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및 취업특성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연구 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등을 맺 음말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높은 주거비는 미혼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독립해 가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생애주기에서 결혼적령기를 전후한 청년시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면서 스스로 소비해야 할 것은 많아지지만, 소득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구매 가능한 가장 비싼 재화이며, 다른 상품과는 달리 소득의 탄력성도 매우 낮다. 경제 수준에 따른 선택 가능한 폭이 크지 않다보니, 자신의 부담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결혼의 시기는 늦어지게 된다. 취업과 더불어 분가를 통한 주거의 확보가 결혼의 선제조건으로 인식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혼에도 달하기 어려워진다(김문길 외, 2015). 결혼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서구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결혼 할 때 ‘신혼집’이라는 것을 마련해가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주거를 확보하길 희망하는지에 따라 결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변수정 외, 2018). 외국의 경우 월세 형태로 신혼주택을 마련하거나, 자가로 매입한다 해도 근로소득에 따라 매입가격의 70~90% 정도를 장기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결혼 시 목돈 마련에 대한 심리적, 물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보증부 월세라는 독특한 주택 임차형태가 존재하는데, 신혼집 마련방법의 과반수 이상(59.5%)은 여전히 전세라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할 때도 매매가격의 상당수준에 달하는 목돈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있어 주거특성 및 환경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 주거 환경 및 특성 등에 대한 연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청년 주거 관련 연구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비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특성이나 실태 또는 주거 점유 형태 관련 연구들도 일부 다루고 있다. 먼저, 청년 주거의 현실을 보여 주는 연구로 청년 주거 특성이 나 실태 분석 연구들이 있다.

청년의 주거문제를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이태진 외, 2016)에서는 청년층의 빈곤과 주거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19~34세 청년에 대한 주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빈곤율은 노인층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빈곤을 경험하는 청년층은 많고, 미혼이면서 남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진 외, 2016).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정리해 보았듯이, 최근에는 청년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년 주거 자체에 관한 연구들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청년 주거 특성과 결혼 의향(의지)과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적어 선행연구 검토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일부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정리해 보도록 한다.

진미정·정혜은(2010)의 연구 결과,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전통적 남녀의 성 역할 태도에 동의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이외의 변수 중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아졌고, 취업상태인 그룹이 미취업상태인 그룹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선보영(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할 의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평균적으로 초혼 연령을 넘긴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은 블루칼라인 경우, 그리고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아서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미혼인 여성의 결혼 의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선희(2012)의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이 갖고 있는 결혼이나 가족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혼인 여성의 연령, 소득, 고용상태가 결혼할 의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할 의향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고선강·어성연(2013)의 연구에서는 30대 연령층인 미혼 남녀의 경제적 자원이 향후 결혼 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은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결혼할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부모의 주택 소유와 결혼 의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성 집단에서는 취업상태인 경우가 미취업상태인 경우와 비교해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현우(2017)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연령, 임금소득, 비혼인 이유가 경제적 이유인 경우 등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임금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아졌으며, 비혼의 이유가 일과 가정의 양립 때문보다는 경제적 이유와 결혼하

기에 이른 나이나 결혼적령기가 지났거나 등의 시기와 관련된 이유인 경우 결혼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난영·최막중(2018)의 연구에서는 2000년~2014년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및 출산을 제약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거비용의 영향을 결혼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은 결혼 및 출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혼가구 청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수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의 연령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임보영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국가적 현상인 저출산의 지역간 격차에 주목하고, 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서의 지역주택가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지역주택 가격 변수로 대변되는 거시적 환경이 개인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헤크만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주택가격이 개인의 결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1단계 분석에서는 소득, 종사상 지위 등 경제적 상태가 안정될수록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분석결과에서는 개인의 교육수준은 자녀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임태균(2022)의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 남성 임금근로자였으며,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 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이현정·임태균, 2022).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윤환(2022)의 연구에서는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첫째, 인천시 지속거주를 위해서는 청년은 관리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택소유 및 질적 수준이 확보된 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인천시 유입을 위해서는 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비 지원과 치안/범죄, 소음수준, 의료시설 등의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은 높은 주거비부담시 서울시나 경기도로의 주거이동확률이 높고, 신혼부부는 신규분양주택과 높은 주택구입 가능성을 위해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천시 청년·신혼부부가 주거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청년은 주거비, 신혼부부는 주택구입으로 나타났다.

해외연구 사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논문을 정리해 보면, Lauster and Fransson(2006)은 스웨덴에서 결혼과 자가소유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결혼을 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동거커플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 비하여 이전보다 감소한데 비해, 부가적인 수입의 영향력은 남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eijten and Mulder(2002)는 20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 결혼과 출산 등이 장기거주 주택 마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가구는 충분한 자산을 확보할 때까지 주택소유를 연기하데 비해, 결혼한 부부나 처음으로 출산한 부부들은 이후에 자가소유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주택점유형태와 출산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장시간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가구의 주택특성과 자가보유성향 및 자가 마련시기 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 중 미혼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결혼 의향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적인 특성과 경제적 상황, 가족 구성의 특성, 동거 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할 의향이 낮았다. 또한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남학생은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결혼할 의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결혼 의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가치관의 영향도 남녀 학생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 대학생은 자녀와 관련된 가치관이 전통적인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고, 여성 대학생은 자녀관보다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인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의향 자체가 여성 대학생보다는 남성 대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본 연구의 주제인 주거의 유형 및 입주형태, 그리고 취업한 일자리의 고용상태에 따른 결혼 의향(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모든 요인을 단일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실증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특성들이 향후 결혼 의향(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경우, 취업 특성까지 고려하여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가 아닌 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청년패널(YP2007) 10~14차 자료를 사용한다. 국내 선행연구들 대다수는 실태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거나, 일부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주거 및 취업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 둘째, 본 연구는 주거특성 변수와 취업특성 변수를 함께 동시에 고려한 연구이다. 즉, 주거특성과 관련이 있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경제적독립 여부), 거주지역, 가구주 여부, 입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주택종류(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등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취업특성(고용형태, 기업체규모, 임금분포 등)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셋째, 5년간의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로지모형을 이용한 고정효과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일반적인 횡단면 분석은 개인의 미관찰 특성을 정확히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편이가 발생하는 등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미관찰 특성을 통제하고 고용효과 모형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 자료 및 분석모형

3.1 이용자료 및 측정변수

본 논문에서는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 전체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주거특성 및 결혼의향 분포를 살펴보고, 주거형태의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1-9차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의향 문항이 1차 조사부터 조사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차(2016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기 때문이다. 10~14차 조사까지 조사에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성별, 연

령, 학력, 거주지역 등 기본적인 인적속성 정보를 추출하고, 입주형태 및 주택종류, 경제적 독립 여부 등 주거특성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과 함께 경제활동상태, 저축여부, 경제적 지원 여부, 건강상태 등의 정보도 추출한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임금 등의 정보도 수집하여 데이터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총 5개년 자료의 34,585명의 전체자료와 18,446명의 취업자 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의 형태의 Pooling data를 구축하였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2016년 10차 조사부터 미혼 청년층에게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설문하여 정보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문11-2 ____님께서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3.2 분석방법

주거특성들이 결혼의향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합동로지모형과 패널로지모형을 이용한다. 합동로지모형은 $y^* = X\beta + \epsilon$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결혼 의지를 나타내는 y^* 는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이를 관찰 가능한 변수로 전환시키면 취업 여부 y 는 두개(binary)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정의된다.

$$y = \begin{cases} 1, & y^* = X\beta + \epsilon \geq 0 \text{ 인 경우 (결혼의향 있음)} \\ 0, & y^* = X\beta + \epsilon < 0 \text{ 인 경우 (결혼의향 없음)} \end{cases}$$

여기에서 X 는 결혼 의지 또는 결혼 의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벡터, β 는 추정될 계수, ϵ 는 오차항으로 ϵ 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로짓모형(logit model), 프로빗모형(probit model) 또는 극한값모형(extreme value model)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결혼 의향 여부를 결정하는 설명변수에는 인적자

본의 대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저축여부, 경제적 지원을 주는지 또는 받는지 여부, 현재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주거 특성과 관련이 있는 가구주 여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입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주택 종류(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등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로 깃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추정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 인해 오차항의 동분산성 가정을 위배하거나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병합된(merge) 패널데이터를 합동(pooled) 프로빗 또는 합동로짓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패널 개체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해야 한다.

$$y_{it}^* = \alpha_0 + \beta x_{it} + u_i + e_{it}$$

위 식에서 오차항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u_i 는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패널개체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e_{it} 는 시간과 패널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여기서는 ‘패널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패널로짓모형은 패널회귀모형 중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며, 오차항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지스틱 분포(평균 0, 분산 $\pi^2/3$, 0을 중심으로 대칭적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사용된다.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추정 방법은 오차항을 어느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 방법이 달라지는데,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은 오차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것이며, 상수항이 패널 개

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은 오차항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 것이다.

4. 청년층의 결혼의향 분포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조사 10~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결혼의향 분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의향의 분포(Table 1)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결혼할 의향 있음’이 53.6%로 ‘결혼할 의향 없음’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6%로 여성(51.5%)보다 4.1%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계층에서 57.6%가 ‘결혼할 의향 있음’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0-34세가 56.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5세 미만은 50.1%, 35세 이상은 49.4%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권 및 경남권 청년층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49%) 및 중부권(49.7%)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도 60.9%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부모님과 동거 중인 청년층은 52.6%,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독립한 경우는 53.5%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56.9%로 가장 높았고, 학생이 52%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는 4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취업 특성에 따른 결혼 의향의 분포(Table 2)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결혼할 의향 있음’이 56.9%로 ‘결혼할 의향 없음’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58.7%)이 임시/일용직(47.5%) 청년취업자에 비해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에 따

Table 1. Marriage Inten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it: %)

Classification		Intending to marry	No intention to marry
All		53.6	46.4
Gender	Male	55.6	44.4
	Female	51.5	48.5
Age	Under 25	50.1	49.9
	25-29 years old	57.6	42.4
	30-34 years old	56.4	43.6
	35+	49.4	50.6
Residence	Metropolitan area	49.0	51.0
	Central area	49.7	50.3
	Gyeongbuk area	68.4	31.6
	Gyeongnam area	61.3	38.7
	Jeolla area	56.3	43.8
Living with parents	Living with parents	52.6	47.4
	Temporary independence	53.5	46.5
	Economic independence	60.9	39.1
Economic activity status	Student	52.0	48.0
	Employed	56.9	43.1
	Unemployed	45.4	54.6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th Panel (YP2007) (in Korean)

Table 2. Distribution of Marriage Intention by Employment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ll	Intending to marry (%)	No intention to marry (%)
All		18,446	56.9	43.1
Employment type	Full-time employee	14,973	58.7	41.3
	Temporary/daily work	2,299	47.5	52.5
	Non-wage worker	1,174	52.5	47.5
Enterprise scale	Small business	8,967	54.4	45.6
	Medium enterprise	3,209	55.8	44.2
	Major company	6,258	61.0	39.0
Wage distribution	Less than 1 million won	442	44.1	55.9
	Less than 1-2 million won	4,390	56.3	43.7
	Less than 2-3 million won	8,626	56.5	43.5
	Less than 3-4 million won	4,064	60.9	39.1
	Over 4 million won	450	70.4	29.6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th Panel (YP2007) (in Korean)

라는 기업체 규모¹⁾가 커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소기업: 54.4%, 중기업: 55.8%, 대기업: 61.0%). 임금 분포에서는 임금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청년층의 주거 및 취업특성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5.1 기초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첫째,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층의 비율은 54%이고, 남성의 비율은 51%로 여성의 비율보다 2%p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46%, 전문대졸 17%, 대졸이상 37%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상태에서는 학생비율이 32%, 취업자 53%, 미취업자 15%로 나타났다. 가구주인 경우가 14%이고, 부모와의 동거 상태인 청년층의 비율은 80%,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경우가 52%, 중부권 13%, 경북권 9%, 경남권 17%, 전라권 9%로 나타났다. 입주형태에서는

자가 71%, 전세 및 월세가 각각 19%, 8%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종류는 단독주택 18%, 아파트 56%, 연립주택/빌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이 각각 16%, 6%, 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44%, 부모를 포함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31%, 경제적 지원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는 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경제상태는 2.96점, 현재 건강상태는 3.74점으로 나타났다²⁾.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취업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형태에서는 상용직 81%, 임시/일용직 12%, 비임금근로자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서는 소기업 49%, 중기업 17%, 대기업 3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분포에서는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24%, '200-300만원 미만' 47%, '300-500만원 미만' 22%, '500만원 이상' 2%를 차지하고 있다.

5.2 실증분석 결과

Table 4와 Table 5는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합동로짓모형을 이용한 추정은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한 패널로짓모형의 추정결과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하우스만 검증 결과³⁾는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과 설명변수들이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1) 기업체규모는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으로 함

2) 현재 경제상태(5점 척도)는 "(1) 매우 어렵다 (2) 조금 어려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여유가 있는 편이다 (5) 매우 여유가 있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5점 척도)는 "(1)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로 구성되었음

3) 하우스만 검증 결과(Hausman Test for Random Effects)

	DF	m Value	Pr > m
All	26	1,090.34	<.0001
Employed	32	448.27	<.0001

Table 3. Basic Statistics

Variable	All (N=34,585)		Employed (N=18,446)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Intending to marry	0.54	0.50	0.57	0.50	
Male	0.51	0.50	0.50	0.50	
Age	26.15	5.71	29.23	4.62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0.46	0.50	0.21	0.41
	College graduate	0.17	0.37	0.26	0.44
	College graduate or higher	0.37	0.48	0.54	0.50
Economic activity status	Student	0.32	0.47	-	-
	Employed	0.53	0.50	-	-
	Unemployed	0.15	0.36	-	-
Head of household	0.14	0.35	0.24	0.43	
Living with parents	Living with parents	0.80	0.40	0.73	0.44
	Temporary independence	0.09	0.29	0.08	0.27
	Economic independence	0.11	0.31	0.19	0.39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area	0.52	0.50	0.53	0.50
	Central area	0.13	0.34	0.13	0.33
	Gyeongbuk area	0.09	0.29	0.09	0.28
	Gyeongnam area	0.17	0.37	0.17	0.37
Resident type	Jeolla area	0.09	0.29	0.08	0.28
	Own house	0.71	0.45	0.67	0.47
	Jeonse ^{a)}	0.19	0.39	0.20	0.40
	Monthly rent	0.08	0.27	0.11	0.31
Housing type	Etc	0.02	0.14	0.03	0.16
	House	0.18	0.38	0.17	0.38
	Apartment	0.56	0.50	0.52	0.50
	Rowhouse or villa	0.16	0.37	0.18	0.38
	Multi-family/multi-family house	0.06	0.24	0.08	0.26
	Officetels	0.03	0.16	0.04	0.20
Etc	0.01	0.10	0.01	0.11	
I saved last year	0.44	0.50	0.74	0.44	
Received financial support	0.31	0.46	0.01	0.12	
Providing financial support	0.08	0.27	0.14	0.35	
Current economic condition	2.96	0.65	3.07	0.62	
Subjective evaluation of current health status	3.74	0.84	3.79	0.75	
Employment type	Full-time employee	-	-	0.81	0.39
	Temporary/daily work	-	-	0.12	0.33
	Non-wage worker	-	-	0.06	0.24
Enterprise scale	Small business	-	-	0.49	0.50
	Medium enterprise	-	-	0.17	0.38
	Major company	-	-	0.34	0.47
Wage distribution	Less than 1 million won	-	-	0.02	0.15
	Less than 1-2 million won	-	-	0.24	0.43
	Less than 2-3 million won	-	-	0.47	0.50
	Less than 3-5 million won	-	-	0.22	0.41
	Over 5 million won	-	-	0.02	0.15

a) Deposit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renting the real est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out monthly payment.

Table 4. Effect of Young People’s Housing Characteristics on Marriage Intention (Panel Logit Model): All

		Model I (Fixed Effects Model)		Model II (Random Effects Model)	
		Estimate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
Male (standard: female)		-	-	0.294***	0.047
Age		-0.572***	0.055	-0.061*	0.033
Age squared		0.005***	0.001	0.000	0.001
Education (standard: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College graduate	0.120	0.161	0.555***	0.074
	College graduate or higher	0.160	0.118	0.657***	0.063
Economic activity status (standard: unemployed)	Student	0.179**	0.090	0.470***	0.066
	Employed	0.088	0.066	0.202***	0.057
Head of household (standard: member of the household)		0.135	0.086	0.092	0.072
Living with parents (standard: living with parents)	Temporary independence	0.122*	0.072	-0.017	0.059
	Economic independence	-0.006	0.093	0.073	0.079
Residential area (standard: Jeolla area)	Metropolitan area	-0.130	0.353	-0.420***	0.081
	Central area	-0.091	0.406	-0.432***	0.096
	Gyeongbuk area	-0.061	0.463	0.719***	0.106
	Gyeongnam area	0.123	0.461	0.291***	0.093
Resident type (standard: own house)	Jeonse ^{a)}	0.138	0.123	0.102*	0.058
	Monthly rent	0.265	0.163	0.260***	0.088
	Etc	-0.309	0.299	0.096	0.158
Housing type (standard: House)	Apartment	0.112	0.156	0.218***	0.060
	Rowhouse or villa ^{b)}	0.390**	0.175	0.278***	0.075
	Multi-family/Multi-family house ^{c)}	-0.132	0.213	0.254**	0.103
	Officetels ^{d)}	0.135	0.242	0.350**	0.142
	Etc	1.188***	0.418	0.633***	0.226
Saving last year (standard: None)		0.244***	0.049	0.441***	0.043
Received financial support (standard: None)		0.075	0.054	0.184***	0.047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tandard: None)		0.343***	0.070	0.434***	0.061
Current economic status (5-point scale)		0.002	0.030	0.054**	0.026
Subjective evaluation of current health status (5-point scale)		-0.016	0.021	0.231***	0.018
Constant		-	-	-0.440	0.473
LR-chi2/Wald-test		976.73***		945.89***	
Number of obs		21,173		34,578	

Note: *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 at 5%, and *** at 1%.

a) Deposit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renting the real est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out monthly payment.

b) a multi-family house built within a building to allow several households to live independently

c) one of the multi-family housing units

d) an office with simple residential facilities

Table 5. Effect of Young People's Housing Characteristics on Marriage Intention (Panel Logit Model): Employed

		Model I (Fixed Effects Model)		Model II (Random Effects Model)	
		Estimate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
Male (standard: female)		-	-	0.480***	0.060
	Age	-0.179	0.115	0.339***	0.059
	Age squared	-0.002	0.002	-0.006***	0.001
Education (standard: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College graduate	0.343	0.709	0.527***	0.087
	College graduate or higher	0.164	0.459	0.661***	0.081
Head of household (standard: member of the household)		0.196*	0.106	0.105	0.083
Living with parents (standard: living with parents)	Temporary independence	0.101	0.125	-0.106	0.092
	Economic independence	-0.081	0.113	0.043	0.089
Residential area (standard: Jeolla area)	Metropolitan area	-0.151	0.504	-0.137	0.105
	Central area	-0.101	0.571	-0.240*	0.125
	Gyeongbuk area	-0.211	0.667	1.024***	0.139
	Gyeongnam area	-0.072	0.645	0.614***	0.120
Resident type (standard: own house)	Jeonse ^{a)}	0.148	0.183	0.096	0.074
	Monthly rent	0.213	0.225	0.197*	0.106
	Etc	-0.282	0.426	0.149	0.185
Housing type (standard: House)	Apartment	-0.065	0.231	0.080	0.079
	Rowhouse or villa ^{b)}	-0.070	0.260	0.215**	0.096
	Multi-family/Multi-family house ^{c)}	-0.394	0.295	0.175	0.125
	Officetels ^{d)}	-0.045	0.323	0.297*	0.158
	Etc	0.600	0.637	0.498*	0.270
Saving last year (standard: None)		0.197***	0.064	0.448***	0.052
Received financial support (standard: None)		-0.253	0.242	-0.026	0.181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tandard: None)		0.259***	0.080	0.432***	0.066
Current economic status (5-point scale)		-0.039	0.046	0.071*	0.038
Subjective evaluation of current health status (5-point scale)		-0.054	0.036	0.186***	0.029
Employment type (standard: non-wage worker)	Full-time employee	0.090	0.171	0.084	0.110
	Temporary/daily work	0.013	0.186	-0.166	0.123
Enterprise Scale (standard: small business)	Medium enterprise	0.199*	0.108	0.007	0.070
	Major company	0.195	0.121	0.164***	0.063
Wage distribution (standard: less than 1 million won)	Less than 1-2 million won	0.297**	0.144	0.563***	0.111
	Less than 2-3 million won	0.276**	0.141	0.327***	0.109
	Less than 3-5 million won	0.458***	0.151	0.390***	0.117
	Over 5 million won	0.769***	0.235	0.822***	0.187
Constant		-	-	-6.654***	0.886
LR-chi2/Wald-test		336.97***		716.30***	
Number of obs		9,885		18,444	

Note: *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 at 5%, and *** at 1%.

a) Deposit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renting the real esta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out monthly payment.

b) a multi-family house built within a building to allow several households to live independently

c) one of the multi-family housing units

d) an office with simple residential facilities

임의효과모형 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고,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학생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가 기준집단인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층에 비해 결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입주형태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주택종류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거주중인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지난해 저축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의효과모형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학생과 취업자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에서는 수도권 및 중부권은 기준집단(전라권)에 비해 결혼 의향이 낮고, 경북권 및 경남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형태와 관련해서는 자가 형태인 청년층의 결혼 의향이 낮고, 전세, 월세 등의 입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주택종류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빌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는 청년층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보다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난해 저축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등에서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경우 비가구주인 경우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저축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임의효과모형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은 기준집단(전라권)에 비해 결혼 의향이 낮고, 경북권 및 경남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형태와 관련해서는 자가 형태인 청년층의 결혼 의향이 낮고, 월세의 입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택종류에서는 연립주택/빌라,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는 청년층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보다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난해 저축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 현재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등에서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의향이 높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향후 결혼 의향(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분석과정에서 포함시키거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는 전자자료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결혼할 의향 있는 응답비율이 53.6%로 나타났고, 남성이 55.6%, 연령별로는 25-29세 연

경제층에서 57.6%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 60.9%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과 동거 중인 청년층(52.6%),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독립한 경우(53.5%)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56.9%로 가장 높았고, 미취업자는 4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58.7%)이 임시/일용직(47.5%) 청년취업자에 비해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서는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소기업: 54.4%, 중기업: 55.8%, 대기업: 61.0%). 특히, 임금 분포에서는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효과를 추정 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고,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학생의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가 기준집단인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층에 비해 결혼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택종류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거주중인 경우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정 한 결과 임금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할 의향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종합해서 보면 남성, 고학력층,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높은 것은 일자리의 질이 안정적이고 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면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한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

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좋은 일자리 진입 실패, 주택 마련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청년층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세대가 지나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현상 중에서 비혼을 희망하는 남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과 안착, 주거문제 해결은 현 청년세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일자리와 주거문제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이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경우 주거문제가 개선 및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렇게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환경이나 주거비 부담이 결국 결혼 의향 및 결혼이행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또한 고비용이 드는 주택 마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자 자산인 청년층이 주거, 일자리, 결혼 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 마련 및 임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수준 등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취업특성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여 빠른 기간안에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은 청년층 사이에 수요가 높은 정책이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아 입주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 지원을 확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이 일부 존재하는 등 분석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주관적인(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족관계, 연애의 경험, 결혼에 대한 생각 등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변수들이지만, 조사자료에는 관련 정보들이 수집되지 못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결혼의향이 있는 청년층 중에서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표본들과 그렇지 못한 표본들을 추출하여 집단간 차이 등 다양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고선강·여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기윤환(2022),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LHI 저널』, 13(4): 13~26.
- 김문길·김미곤·김태완·최민정·이세미(2015), 『청년 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주(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택도시연구』, 10(1): 39~62.
-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도난영·최막중(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 163~189.
-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박미선·이재춘(2018),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 국토정책브리프, 세종: 국토연구원.
- 변수정·조성호·이지혜(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정·임태균(2022),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에 관한 중단 분석”, 『LHI 저널』, 13(2): 31~47.
- 임보영·강정구·마강래(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3(1): 137~151.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탁현우(2017), “저출산대책-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지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2036.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Youth Panel (YP2007) 10th-14th (2016-2020)”. (in Korean)
- 황광훈(2021), “청년층은 희망직업으로 취업하고 있는가”, 『직업능력개발연구』, 24(3): 57~83.
- 황광훈(202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청년층의 주거 특성 및 주거특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LHI Journal』, 13(3): 21~38.
- Feijten, P. and C. H. Mulder (2002), “The Timing of Household Events and Housing Events in the Netherlands: A Longitudinal Perspective”, 『Housing Studies』, 17(5): 773~792.
- Lauster, N. T. and U. Fransson (2006), “Of Marriages and Mortgages: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Home Ownership in Sweden”, 『Housing Studies』, 21(6): 909~927.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주제어 : 주거, 취업, 결혼의향, 합동로짓, 고정효과모형
